

중학생의 분노,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이종은¹ · 최동원² · 임정혜³

상지대학교 간호학과¹,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², 진주보건대학교 간호과²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iddle School Students' Ange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ng-Eun Lee¹ · Dong-Won Choi² · Jung-Hye Lim³

¹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Sangji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³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model to explain factors associated with middle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anger and depression

Methods: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349 students selected randomly in 11 middle schools in D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18.0(win) and AMOS 18.0(win) program.

Results: Model fit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commended levels (CFI=.957, GFI=.945). Based on the constructed model,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anger directly, and suicidal ideation was directly influenced by depression, indirectly by anger. It was confirmed that depression turned out to be a important mediating variable on suicidal ideation and anger in middle school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nterven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anger or depression is important to reduce the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addition, specific nursing intervention plans, including fostering of humanistic and achievement-focused educational environment, peer support programs, and individual counselling,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control a feeling of anger and depression.

Key Words: Adolescent, Anger,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 자살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는 경향으로 이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연령대별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한 가운데 자살이 10대의 사망원인 중 1위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12)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3.4%로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4.4%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문제 행동이라 할 수 있다(Yong, 2011).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 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제와 이성문제 및 외모문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Korea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 실

Corresponding author: Dong-won Choi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72 Onjeong-ro, Gweonseon-gu, Suwon 441-748, Korea.
Tel: +82-31-290-8205, Fax: +82-31-290-8142, E-mail: dionia22@naver.com

투고일: 2013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7일

제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여자, 우울성향이 높은 반면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응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 Park과 Chung (2010)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와 관련된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환경과 분위기로 인하여 공부에 대한 의무감을 많이 느끼는 나머지 학업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우울은 청소년기의 흔한 심리적 문제로 자살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Goldney, Winefield, Saebel, Winefield, & Tiggeman, 1997; Park, 2009; Yong, 2011). 또한 Lee (2011)와 Yong (2011) 들도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상 특성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우울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표출하는 미성숙한 대응을 하고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분노는 모든 연령대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일상적인 감정이다. 청소년기는 감정 변화와 정신적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 분노를 경험하게 되지만 분노감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Goldney 등(1997)은 분노 해결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으며, Golden (2003) 역시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 청소년들에게 우울, 자살경향, 물질남용, 적대감, 폭력 및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분노가 자살 생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살생각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더구나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장차 자살을 예측하는 변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여야 할 문제이다(Prinstein et al., 2008). 자살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나 조치도 소용이 없기에, 예방만이 자살에 대한 유일한 대처이므로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 Nho, 2003).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검토하고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학교 시기는 발달단계상 고등학교나 성인과 다른 생활양식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경험하며, 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분노나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Park et al., 2010). 과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생각과 높은 상관성이 있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되었으나(Kim & Nho, 2003) 최근의 조사결과에서는 중학생(29.3%)이 초등학생(16.7%)이나 고등학생(24.7%)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Korea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 청소년기 중에서도 중학생을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에 대한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Ko & Yoon, 2007; Yong, 2011; Park, 2009), 관련요인도 우울 위주로만 이루어져 대처능력이 낮은 중학생의 분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며 그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중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노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자살생각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학생의 분노, 우울 및 자살생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한다.
-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 우울 및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분노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의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 구안을 위해 분노, 우울, 자살생각의 이론적 근거를 종합하여 얻은 하위 변인을 추출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즉 첫째, 분노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 우울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셋째로 분노가 자살생각에 우울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

노,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중학생의 분노, 우울 및 자살생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Figure 1과 같이 분노는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변인으로 분노는 분노유발 상황(anger-elicited), 분노각성요인(anger-arousa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통제양상(anger-control)으로 이루어졌고, 우울은 부정적 정서(negative mood), 대인관계 문제(interpersonal problem), 비효율성(ineffectiveness), 흥미저하(anhedonia), 부정적 자아상(negative self-esteem)으로 구성되었으며 분노의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으로 분노,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분노가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검증하는 경로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대상자는 D시 소재 지역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11개 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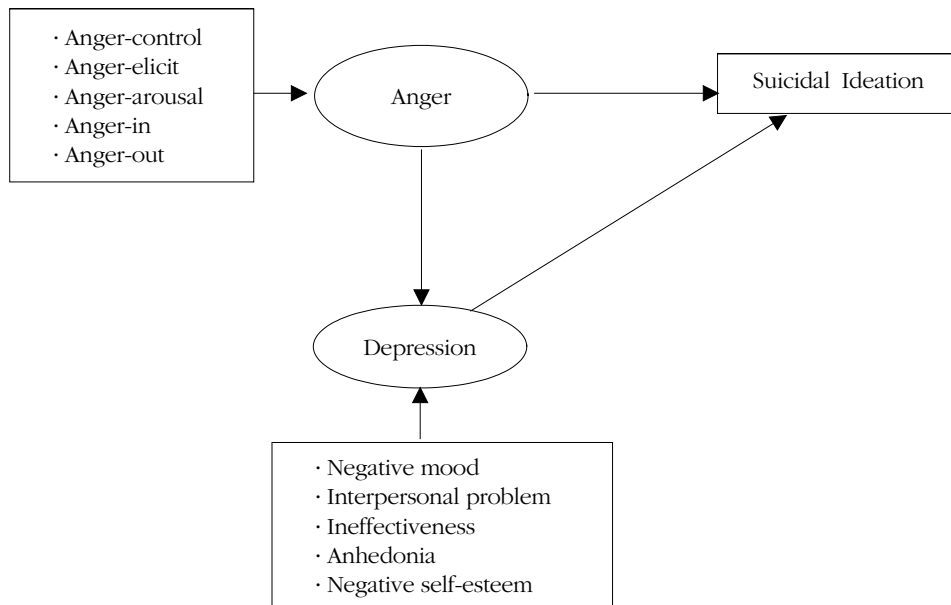
교를 층화 비율 무작위 표집과정을 거쳐 배정한 후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학교별로 25~50명을 1~3학년으로 고르게 배정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이 연구의 취지와 중요성, 연구절차에 대해서 배정된 각 학교보건교사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고, 각 학교의 보건교사가 학교 측에 허락을 구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보건교사가 각 교실로 입실하여 연구에 관해서 설명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으며, 총 480명의 학생들 중 382명의 학생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고(79.6%),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33부를 제외하여 총 349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91.4%).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소 표본의 크기가 150개 정도가 필요하고, 200~400개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Loehlin, 1992)과 공변량 구조분석의 표본크기는 구조모형 분석 시 표본의 크기가 200명 이상이어야만 복잡지수들의 모형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Kim, 2007), 349명의 본 연구대상자는 분석에 적합하였다.

3. 연구도구

1) 분노

분노는 Siegel (1986)이 개발한 the 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 (MAI)를 Lee (1990)가 변안한 자가보고식



[Figure 1]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도구를 사용하였고, 국내 중학생의 분노 측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5점 척도로 ‘자신과 완전히 무관함’ 1점, ‘대부분 무관함’ 2점, ‘일부 맞음’ 3점, ‘대부분 맞음’ 4점, ‘완전히 들어맞음’ 5점으로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분노유발 상황(anger-elicited), 분노각성요인(anger-arousa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통제양상(anger-control) 등을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감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기 36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시행 후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최종 총 29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 우울

우울은 Kovacs (1983)가 개발한 소아 우울척도를 Cho와 Lee (1990)가 번안하여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자가보고식 우울 평정 도구로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세에서 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척도로서 부정적 정서(negative mood), 대인관계 문제(interpersonal problem), 비효율성(ineffectiveness), 흥미저하(anhedonia), 부정적 자아상(negative self-esteem) 등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문항의 역문항을 포함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3점 척도(0~2점)로서 지난 2주 동안의 기분상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총점은 0~54점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Cho와 Lee (1990)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3)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Reynolds (1988)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Shin (199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개월간 자살사고의 빈도를 파악하는 총 30문항 7점 척도의 자가보고형 척도로 죽고 싶은 생각이나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의 채점 방식은 최근 한 달 동안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에 1점,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달에는 한 적이 없다’에 2점, ‘한달에 1번’에 3점, ‘한 달에 2~3번’에 4점, ‘일주일에 1번’에 5점, ‘일주일에 2~3번’에 6점, ‘거의 매일’에 7점을 부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WIN 18.0 프로그램과 AMOS/WIN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을 사용하여 1단계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의 확인요인분석으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고, 2단계로 경로분석을 통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Normed χ^2 (CMIN/DF ≤ 3), RMSEA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 0.05), GFI (Good fit Index ≥ 0.9),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 0.9), CFI (Comparative fit index ≥ 0.9) 등을 사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직접·간접 효과 분석은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 우울, 자살생각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64.5%로 여학생보다 많았고, 중학교 2학년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응답자의 59.7%가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성적은 중위권 응답자가 55.5%였다. 경제상태는 80.2%가 중등도로 응답하였고, 건강상태는 양호함이 64.8%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52.4%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분노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분노정도는 2.45점으로 낮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중간인 경우는 2.68점,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3.02점으로 높았다. 성적이 높은 경우 분노정도는 2.57점으로 낮았고, 성적이 중간인 경우 2.65점, 성적이 낮은 경우 2.78점으로 높았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분노정도는 2.56점으로 낮았고,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는 2.81점, 건강상태가 약한 경우 3.11점으로 높았다(Table 1).

2) 우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0.41점으로 낮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중간인 경우 0.59점,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0.84점으로 높았다. 성적이 높은 경우 우울정도는 0.46점으로 낮았고, 성적이 중간인 경우 우울정도는 0.55점, 성적이 낮은 경우는 0.74점으로 높았다. 경제상태가 상위인 경우 우울정도는 0.50점으로 낮았고, 경제상태가 중간인 경우 우울정도는 0.56점,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우울정도는 0.74점으로 높았다<Table 1>.

3) 자살생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는 여학생이 2.05점으로 남학생 1.73점보다 높았다. 학교생활만족도가 중간인 경우 1.84점,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2.48점으로 높았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살생각은 1.74점으로 낮았고,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는 1.96점, 건강상태가 약한 경우는 2.83점으로 높았다<Table 1>.

2.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최대우도 추정법으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측

정도구의 하위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0.5 이하이었으나, 개념신뢰도가 0.6~0.7사이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측정도구의 하위 요인들은 흥미저하(anhedonia) 요인만 평균분산 추출 값이 0.5 이하였고, 그 외 요인들은 모두 평균분산 추출 값이 0.5 이상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변수를 포함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chi^2=2,775.922$ ($p<.001$), $\chi^2/DF=1.869$, RMSEA=0.050, GFI=0.777, 증분적합지수 TLI=0.772, CFI=0.788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

분노와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2). 경로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 $\chi^2=115.236$ ($p<.001$), $\chi^2/DF=2.743$, RMSEA=.071, GFI=.945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 TLI=.944, CFI=.957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Comparison of Ange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Anger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25 (64.5)	2.62±0.44	-1.844	0.56±0.30	-0.862	1.73±1.02	-2.666
	Female	124 (33.5)	2.72±0.54	(.067)	0.59±0.54	(.389)	2.05±1.21	(.008)
Year	1st	67 (19.2)	2.69±0.50	0.465	0.60±0.33	1.420	1.73±0.97	1.298
	2nd	202 (57.9)	2.64±0.47	(.628)	0.55±0.29	(.243)	1.82±1.11	(.274)
	3rd	80 (22.9)	2.69±0.49		0.60±0.29		2.01±1.16	
School life satisfaction	High	96 (27.7)	2.45±0.43 ^{bc}	35.407	0.41±0.26 ^b	39.817	1.57±0.96 ^{bc}	24.518
	Medium	207 (59.7)	2.68±0.43 ^{ac}	(<.001)	0.59±0.27 ^a	(<.001)	1.84±1.01 ^{ac}	(<.001)
	Low	44 (12.7)	3.02±0.57 ^{ab}		0.84±0.32 ^{ab}		2.48±1.48 ^{ab}	
Academic achievement	High	83 (24.1)	2.57±0.48 ^a	6.948	0.46±0.30 ^{bc}	19.352	1.80±1.02	3.282
	Medium	181 (55.5)	2.65±0.43	(.031)	0.55±0.26 ^{ac}	(<.001)	1.76±0.96 ^a	(.039)
	Low	70 (20.3)	2.78±0.58		0.74±0.33 ^{ab}		2.14±1.46 ^a	
Economic status	High	40 (11.7)	2.65±0.49	1.939	0.50±0.30 ^a	5.557	1.72±0.85	1.454
	Medium	275 (80.2)	2.64±0.47	(.145)	0.56±0.30 ^b	(<.001)	1.83±1.12	(.235)
	Low	28 (8.2)	2.83±0.52		0.74±0.29 ^{ab}		2.16±1.14	
Health status	Well	225 (64.8)	2.56±0.46 ^{ab}	15.653	0.52±0.29 ^{ab}	21.693	1.74±1.01 ^a	5.849
	Usual	112 (32.3)	2.81±0.44 ^b	(<.001)	0.64±0.28 ^{bc}	(<.001)	1.96±1.16 ^b	(.003)
	Weak	10 (2.9)	3.11±0.70 ^a		0.90±0.48 ^{ac}		2.83±1.61 ^{ab}	
Religion	Yes	182 (52.4)	2.64±0.50	0.854	0.53±0.30	2.276	1.76±1.05	1.418
	No	165 (47.6)	2.68±0.45	(.394)	0.61±0.30	(<.001)	1.93±1.14	(.157)
Total		349 (100.0)	2.66±0.48		0.57±0.30		1.84±1.10	

a,b,c Tukey's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첫째, 분노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가는 표준화 경로계수 0.727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분노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가는 표준화 경로계수 0.668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우울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2)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분노와 우울, 우울과 자살생각, 분노와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Table 4), 분노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분노가 우울을 매개변수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0.486 ($p < .001$)으로 Bootstrapping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분노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full mediation)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총 효과는 0.583 ($p < .0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의 활동 범위는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업을 잘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생활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적 충체를 말하며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학교생활적응이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은 그들의 하루 중 주요일과를 차지하고 학과공부 뿐 아니라 교사 및 교우관계 등의 경험들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Kim, 2003; Park, Lee, & Lee, 2007).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분노, 우울 및 자살생각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분노 및 우울수준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Choi, 2012; Kim, 2003; Park, Lee, & Lee, 2007)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생활이 학교 내외에서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청소년의 심리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외적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분노와 우울을 방치하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면 학교생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주기적으로 심리상태

고찰

본 연구는 분노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분노 및 우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모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 점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Anger, Depression, & Suicidal Ideation (N=349)

Variables	Anger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r	r	r
Anger	1		
Depression	.572**	1	
Suicidal ideation	.523**	.674**	1

** $p < .01$.

<Table 2> Fit Measures of the Measured Models and Hypothesi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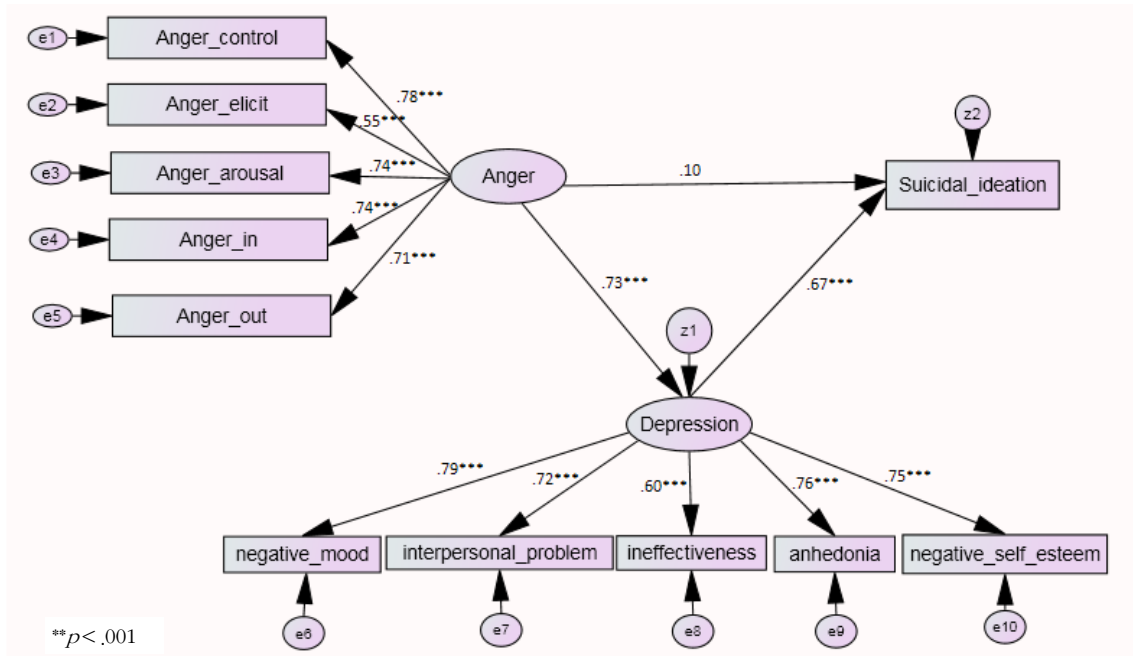
Index	CMIN	DF	CMIN/DF	CFI	TLI	GFI	RMSEA (LO90-HI90)
Measured model	2,775.922***	1,485	1.869	0.788	0.772	0.777	0.050 (0.047~0.053)
Hypothesis model	115.236***	42	2.743	0.957	0.944	0.945	0.071 (0.056~0.086)

*** $p < .001$.

<Table 3> Path Coefficient of Ange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Path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Anger → Depression	0.393	0.727	0.037	10.649***
Depression → Suicidal ideation	2.339	0.668	0.276	8.483***
Anger → Suicidal ideation	0.184	0.097	0.136	0.178

*** $p < .001$.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hypothesis model.

와 학교생활 만족도 및 적응 정도를 조사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생활 지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생각도 학교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다는 Kim 과 Lee (2009)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그에 따른 실패와 두려움,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 Kang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Kim 과 Lee (2009)는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교사, 또래집단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충족감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부정적일수록 분노, 우울, 자살생각 정도가 높아지므로 학교생활만족도를 통하여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적은 분노와 우울의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기의 학업성적은 현실적으로 그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동시에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으로 학업의 성공여부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이어져 청소년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ee (2007)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반면, Nho와 Kim (2012)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

다. 이는 성적이 학생을 평가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의 사회분위기에서 성적이 높거나 낮은 것과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에게 심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청소년은 우울을 호소하고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까지 이어져 삶의 포기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Park & Chung,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업성적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종모형을 통해 분노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분노의 영향으로 중학생의 우울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에 비추어 우울은 분노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울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분노는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더하여 강력한 총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분노와 우울 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들(Ihm, Song, & Kim, 2012; Golden, 2003; Yoon, 2009)과 이미 청소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우울을 확인한 연구들(Lee, 2007; Lee, 2011; Park, 2009)과 유사한 맥락으로 분노 및 우울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자살행동과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분노와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타 연구와의 비교는 어렵지만 Ihm 등(2012)은 과도한 분노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Yoon (2009)은 우울성향 청소년들이 분노상황에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 때문에 우울과 절망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Zaitsoff, Geller와 Srikaneswaran (2002)는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압이 강한 사람은 우울로 인해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학생은 초기 청소년단계로 이 시기의 심리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고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악물남용, 무분별한 성적 행동, 소외감, 자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심리상태측정을 통해 분노와 우울 취약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심리 회복과 관련된 자원개발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학생의 분노,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련변인과 자살생각에 있어 분노와 우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습관의 정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극단적 대처를 피하기 위한 지지체계가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구체화되어 계획이나 실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청소년 단계부터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이 경험하는 분노와 우울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다체계적 관점에서 이들 심리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이들에 맞게 중재하는 것이 전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분노, 우울, 자살생각의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 분노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노, 우울 및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분노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우울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은 물론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

가 가능하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학생의 정신 건강 증진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 분노와 우울을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Cho, S.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4), 943-955.
- Choi, K. I. (2012). Mediating effect of youth's self protective factor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GRI Review*, 14(3), 171-190.
- Golden, B. (2003). *Healthy anger: How to help children and teens manage their ang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ney, R., Winefield, A., Saebel, J., Winefield, H., & Tiggemann, M. (1997). Anger,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A prospective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38, 264-268.
- Ihm, M. O., Song, M. K., & Kim, C. S. (2012). A study of anger,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maladaptation based on traits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2), 501-523.
- Kang, M. S. (2007).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o, J. H., & Yun, K. 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n Korean Youth*, 18(1), 185-21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2010 Statistics on adolescents. Available: <http://kostat.go.kr>
- Korea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 *2012 Mental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Available: <http://www.nypi.re.kr/paper/>
- Kovacs, M. (1983).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51-661.
- Kim, G. S. (2007).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Publishing.
- Kim, H. S. (200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suicidal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s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231-242.
- Kim, J. S., & Roh, S. D.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and psychosocial variables.

-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1, 153-171.
- Kim, K. S. (2003).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anger, anger coping strategies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3), 393-410.
- Lee, B. K. (1990). *Effect of biofeedback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blood pressure in essential hypertensiv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 Lee, E. S. (2007).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4), 576-585.
- Lee, J. M. (2011).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oehlin, J. C. (2004). *Latent variable models: An introduction to factor, path, and structural analysis* (4th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Nho, C. R., & Kim, S.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related stress, perceived school gra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factors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9, 39-68.
- Park, E. (2009). The associated factors on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2(2), 13-23.
- Park, H. S., Nho, J. S., Bae, S. Y., Choi, M. S., Ko, D. S., & Park, J. (2010).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korean middle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1), 19-28.
- Park, J. Y., & Chung, I. J. (2010).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problems on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onal effects of individual-leve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2, 69-97.
- Park, S. H., Lee, H. C., & Lee, J. Y. (200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group counsel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7(2), 17-36.
- Prinstein, M. J., Nock, M. K., Simon, V., Aikins, J. W., Cheah, C. S. L., & Spirito, A. (2008). Longitudin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following inpatient hospitaliz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92-103.
- Reynolds, W. M. (1988).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hin, M. S. (1993).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iegel, J. M. (1986). The 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91-200.
- Yoon, K. H. (2009). *Irrational belief, anger thought and anger expression of paranoid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Yong, M. J. (2011). *Study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relevan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Zaitsoff, S. L., Geller, J., & Srikam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s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 *European Eating Disorder Review*, 10(1), 51-60.